



인간은 빌딩을 짓고 빌딩은 인간의 삶을 만든다

우리네 삶에서의 '틈'이란 시간적인 여유와 그 여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닐까. 정신없이 바쁜 일주일을 허겁지겁 지낸 후 찾아오는 주말의 나른한 피곤함 그리고 그 달콤함, 또 다음 일주일의 일상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 우리의 도시와 건축에도 삶의 여유와 여지를 위한 공간적·시간적 틈들이 살아 숨 쉬고 있다. 혹시 그 틈들을 우리가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글 | 사진·명재범_ (주)나우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어린 시절 문'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 초인종도 변변히 없던 시절, 이웃 친구네 대문 해진 틈 사이로 집 안을 들여다보곤 했다. 인기척이 느껴지면 친구 이름을 부르며 '노올자'고 외쳤었지. 방 미닫이문의 창호지에 침을 발라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며 놀다가 엄마에게 무척 혼나기도 했었지. 오래된 담장의 부서진 틈 사이로 이름 모를 잡초를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했었고... 벽이나 바닥에 난 균열이 만든 틈, 이 또한 틈일 게다.

공간적 틈, 이것이면서 저것이고 안이면서 밖인

건축에는 이런 작은 물리적인 틈보다 아주 큰 '공간적인 틈'도 있다.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미세한 틈과 달리 공간적인 틈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집과 도시 속에 숨어 있는데, 다만 그 틈이 우리를 감쌀 만큼이나 크기 때문에 쉽게 눈치 채지 못할 뿐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느긋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바라보자. 그러면 도처에 삶의 여유와 여지를 위한 공간적 틈들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누구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적인 틈은 우리 옛 한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안채-사랑채-행랑채로 둘러싸인 안마당이 대표적이다. 얼마 전까지도 흔히 볼 수 있었던 밀도 높고 좁은 서울의 근대 한옥의 마당이 특히 더 그렇다. 4~5평 남짓한 마당은 빨래터이자 김장철의 주방이었으며, 몸짱이 되고 싶은 오빠의 헬스장이면서 화초를 키워 가꾸는 엄마의 훌륭한 정원이자 카페이기도 했다. 또한 대청마루나 툇마루는 어떠한가. 비 오는 날 이곳에 앉아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의 율동과 소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즐긴 적이 있다면 쉽게 공감할 수 있으리라.

건축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틈의 공간'이라 한다. 틈의 다른 말은 '사이'인데, 공간적으로 사이는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곳이면 어김없이 드러난다. 이러한 경계부의 특징은 명료함인데 반해, 재미있게도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사이 공간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함과,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는 모호함이라는 여지가 항상 숨 쉬고 있는 '잠재성'의 공간이다.



그래서 건축이나 도시에서의 틈은 공간적으로 비어 있으면서도, 그 쓰임새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속에서 일상에 대한 휴식·명상·관조 등의 행태가 벌어질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곤 한다. 예컨대 한옥의 마당이나 마루·정자 등의 공간은 안이면서 밖이기도 하고 밖이면서도 안인데, 그 쓰임 또한 다양하고 무한하여 틈의 공간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골목과 마을로 확대되는 틈의 풍경

공간적인 틈은 집을 나서면 골목과 마을로 확대된다. 특히 이런 틈은, 생활공간의 여지를 찾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런 욕구라서 그런지, 밀도 높은 도심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다. 골목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골목길에 너무러져 있는 평상, 때론 그 길을 덮고 있는 등나무 파고라, 소박한 화초로 마치 집 마당처럼 가꾸진 골목길 모습 등은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우리네가 사는 '틈'의 풍경이다.

골목길 틈에서 일어나는 삶의 진솔한 풍경을 기록한 대표적인 분이 작고한 김기찬 사진작가다. 그의 <골목 안 풍경> 사진집을 보면, 도심지 골목길이 단순히 집과 집 사이를 연결하는 길과 물리적인 틈이 아니라, 그 동네 커뮤니티를 위한 휴식과 놀이·작업 등의 생활공간 자체였다는 것을 생생히 접할 수 있다. 아이들이 누워 숙제를 하는 공부방이었다가 어느 때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다 카페였다가, 날이 좋은 때는 빨래 말리는 장소로 변신하는 마법을 부린다.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듭니다'라는 프로스트의 시 구절처럼, 골목길의 틈은 여유와 여지,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틈이 아닐까 싶다.

감탄과 명상, 영감의 틈을 열어 주는 공간

이런 공간적인 틈이 더욱 맛깔스러워질 때가 있다. 장소적인 관점에 더하여 '시간적인 틈'과 함께 바라볼 때이다. 시간이라는 '찰나'와 그리고 '존재'들이 만들어 내는 '공간'의 향연... 예를 들어 나뭇잎이 무성한 계절에 빛이 더해지면 그 안쪽 공간은 주변 존재들의 특성에 따라 그들만의 색조와 윤기가 넘치는 곳이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마주하면 절로 감탄과 탄성이 나온다.

나는 아마 살아 있는 동안은, 불국사 비로전 안마당의 붉은 색조와 이제는 사라져 버린 개심사 방지(方池)에서 '자네 잠깐 마음을 내려놓게나~!'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침묵의 소리, 평온의 분위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건축에서 '좋은 공간이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곳'이란 말이 있다. 나는 이런 장소의 틈이 바로 감탄과 명상 그리고 영감의 틈을 열어 주는 것이며, 동시에 틈의 미학적 진수가 담긴 좋은 장소라고 늘 생각한다.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또 다른 틈의 공간이 있다. 어둠이 깔리는 밤이면 어김없이 마주칠 수 있는 가로등 불빛 아래



다. 예전의 가로등은 골목 어귀에 서서, 힘겹게 어둠을 밀어내 회미하지만 '밝음'이라는 아담한 틈의 공간을 만들어 냈다. 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동네 어귀 가로등 불빛 아래 틈의 공간에 당도하면, 마음 한편의 틈에 잠자던 안도와 위안이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 긴장을 풀어 주곤 했던 기억을 누구나 가지고 있으리라. 이 또한 향수와 세월의 애잔함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 속 틈의 공간이다.

이제는 도처에 널려 있는 가로등 불빛, 아파트 단지 안만 해도 가로등 불빛이 수두룩하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크기와 형태로 어둠 속에 서 있다. 때로 그 가로등 불빛들이 이웃하는 잎사귀 풍성한 나무들과 만나서, 미약하지만 섬세한 그림자로 벽화를 그리기도 한다. 그 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가로등과 나뭇잎의 합창 소리가 들린다. 아~! 이 틈은 뭐라 해야 좋을까. 존재들의 수다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림 존재들의 짝짓기를 엿보게 해 주는 '틈'이네!

삶의 건강성과 행복을 짓는 방식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는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계·거울·창문이 없다고 한다. 거울을 보고 도박에 빠진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깨닫게 해 줘서는 안 되고, 창밖이나 시계를 보고 아침이 밝았다는 것도 알게 해 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은연중에 생활 속의 여지와 여유 '틈'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유리창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예가 거의 없는데, 발코니를 없애는 게 유행인 우리 사회는 혹시 삶의 틈을 스스로 지워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외부와 내부가 하나인 듯 서로 다른' 옛 한옥의 주거 유형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생활환경에 수천 년을 적응해 온 결과였는데 말이다.

경제성장과 교통 편리에만 함몰되어 복개하였던 하천들이, 이제는 다시 콘크리트 덩어리를 걷어 내고 하늘과 빛을 만나고 있다. 청계천이 그렇고 성북천도 그렇다. 다시 사람들이 하천을 찾고, 생물들도 식물들도 하천을 찾고 있다.

윈스턴 처칠 경의 '우리가 빌딩들을 짓고, 그로 인하여 그 후 그 빌딩들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글이 생각난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틈의 공간과 그 쓰임을 상기해 보자.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 자녀의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를 곰곰이 헤아려 보자. 결국 건축과 도시에 '틈'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건강성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이다. **IBK**

